

# 세계가 주목한 '천재 장애인 조각가' 이원형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천재 조각가 이원형씨가 화제다. 이원형 씨는 부모는 있지만 어린시절 켈렐이 흠어져 고아처럼 살았다. 3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 몸에는 장애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그는 중학교 입학부터 신체검사 때문에 번번히 낙방을 했던 아픔이 있다. 서울의대 입시에도 합격했지만 역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2차로 와대 영문과에 진학했지만 6개월만에 휴학을 하고 척추수술을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병원에서 탈출, 지금의 영종도 섬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자랐다.

사립고사에 도전해 1차까지 통과했지만 친구를 따라 간 미술 학원에 서 작품을 접하는 순간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다른 세상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예술의 길로 들어섰다.

졸업 후 미국에서 미술대학원도 나왔다. 캐나다에서 공인회계사로 남 부럽지 않은 성공도 했지만 그는 미술세계를 떠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다시 조각을 시작, 2002년 대학원에 또다시 진학했다. 미술세계를 떠나 있었던 시간들을 재충전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미술이 나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지를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지도교수님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어떤 작품을 해야 될지 확실히 결정될 때까지 작품을 하지 않을 것이니 몇 주, 몇 달이 지나더라도 이해해달라 고 말했습니다. 그 때부터 왜 작품을 해야 하는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쉬웠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작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작품을 하는 이유다. 한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가 조각을 하겠다고 방향을 결정한 것도 형태를 만드는 데는 역사상 어떤 작가보다도 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가 조각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건 2007년부터다. 뉴욕에서 열린 마트 엑스포에 출품한 작품에 영국과 미국의 딜러들이 관심을 보였고, 지금은 그 인기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그의 작품은 인간의 욕망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 때는 장애 라는 두 글자가 그의 인생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조각가로 새롭게 태어난 조각가 이원형. 작품의 세계까지 깨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의 작품세계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m

Editor 서상원 기자 | Photographer 조현방